



용호만 정화·대연천 생태 복원 추진

부산시·해양환경관리공단, 친수공간 조성 악취제거로 살기좋은 남구 실현 박차



해양환경관리공단 3차년도 용호만 정화사업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준설선을 이용해 오니 등의 오염퇴적물을 정화하고 있는 모습.

남구가 대연천 생태복원과 용호만 정화사업을 통해 활기차고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용호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3차년도 사업을 지난달 23일부터 실시

하고 있다. 1·2차 사업을 통해 용호천 대부분을 정화한 공단은 내년 1월까지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연천 등 61.172m² 면적의 오니를 제거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동안 전공휴일만 폐쇄할 방침을 통해 2차 오염을 최소화 하

는 한편 준설선에서 증진속을 처리한다.

공단은 이번 공사가 준공되면 용호만 일대 수질이 여류 양식이 가능한 2등급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2013년 오·우수분리식하수관리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용호만 일대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차 정화사업을 벌여 43,583m³의 오니를 준설했다. 그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70%, DIN(용존무기질소)가 90% 감축되는 등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관계자는 “용호만 정화사업은 퇴적된 오염물질과 해수정제 등으로 악취가 발생해 인근 8,500세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며 “사업이 끝나는 내년이면 이 일대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대연천이 환경부의 ‘도심 건전·복개천 생태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UN조각공원에서 용호교에 이르는 대연천 740m 구간을 복원, 생태하천과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개된 상류 130여m 구간을 본래대로 되돌리고 나머지 구간은 바닥과 좌우 둔치의 콘크리트를 뜯어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실시계획을 한 다음 2013년 공사에 들어가 2015년 완공할 계획이다.

건전한 대연천의 수량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인근 UN기념공원과 평화공원이 연계된 시민 휴식공간이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연천과 바다가 만나는 용호만 수질도 개선된다.

백운포체육공원 야간조명시설 준공

주·야간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로 탈바꿈



백운포체육공원 야간조명시설 준공식이 지난 10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백운포체육공원이 야간조명시설을 갖추고 주·야간 이용이 가능한 주민 체육시설로 재탄생했다.

남구는 지난 10일 저녁 백운포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남구청장과 김부성·김정훈 국회의원, 시·구의원, 생활체육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포체육공원 야간조명시설 준공식을 열었다.

구는 지난 3월 부산시로부터 사업비 3억4,700만원을 지원받아 인조잔디구장 등 4개 구장과 부대시설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 공사에 들어가 공사 2개월만인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백운포체육공원 2차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 생활체육인들이 야간에도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백운포체육공원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인조잔디구장장 조명탑 6기와 조명등 96등 등 모두 15개 조명탑과 170개의 조명등 등이다. 부대시설에도 공원등주 13본을 설치해 주변 경관을 밝게 했다.

이에따라 백운포체육공원은 주·야간 전천후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로 거듭나게 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해 체육동호인들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공원 내 축구장 인근에 연면적 55m²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8천 여 만원이 투입된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내달 8일 성과보고회

2011년 부산남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성과보고회가 내달 8일 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정·관계 인사들과 교육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인사들의 다과회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센터 사업의 추진실적을 알리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부산박물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나와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용문·백운초교 학생들의 시범공연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친다.

센터는 보고회를 통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의 중심으로 센터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구드림스타트센터 이전 개소

프로그램실·상담실 갖추고 대상아동 학습지도

남구드림스타트센터가 감만1동 감만사회복지관 인근에 새롭게 동지를 틀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 28일 오전 남구청장과 김부성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드림스타트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에 이전한 센터는 182m² 부지에 지상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한 감만1·2동 지역의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멘토링 하고 학습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 우암2동주민센터 2층에 위치

한 센터는 우암1·2동과 문현4동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로 운영된다.

한편 센터는 지난 2009년 6월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 문을 열었으며 5월 현재 188세대 263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센터를 이전·개소하게 된 것은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막고 공평한 출발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넓어진 전용상담실과 프로그램실을 활용해 대상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07-6482

양지골·나눔경로당 개소 <3번>

여름방학 프로그램 다채 <4번>

사계절 꽃 피고 푸른 남구 조성

남구가 사계절 꽃피고 푸른 녹색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다.

구는 최근 대연3동 49호 광장 인근 도로변 방음벽면 녹화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7월말까지 용호로 지역에 그린 트렐리스(Green Trellis) 200여 개를 설치해 도심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49호광장 방음벽면 녹화사업

남구는 최근 대연3동 49호 광장 대연비치 도로변 방음벽면 녹화사업을 완료하고 이곳을 오가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완공된 녹지공간은 남구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이곳의 가로 37m, 세로 2.8m 방음벽면에 격자 모양의 식생매트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상록잔디패랭이와 맥문동 등 다년생 식물들을 심어 조성했다. 구조물 사이에는 관수시스템을 갖춰 수시로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설계돼 있다.

부산에서 최초로 조성된 녹지공간은 기존의 담벽이 넘칠로 조성하던 벽면 녹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응이 좋아 구는 사업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연3동 유동원 동장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남구의 또 다른 관문인 49호 광장 근처 화색빛 방음벽이 녹지공간으로 거듭나게 돼 지역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용호로 그린 트렐리스 설치

보도 폭이 좁아 가로수를 심을 수 없었던 용호로에 그린 트렐리스(Green Trellis·격자형 인공화분)를 설치해 도상에 녹색을 입히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오는 7월까지 용호로 1,400m에 그린 트렐리스 200여 개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그린 트렐리스(Green Trellis)’란 격자형 디자인 구조물에 헤데라 등 덩굴성 식물들을 심어 설치하는 새로운 도시녹화방법으로 직각형과 원통형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도 폭이 좁거나 교량, 인도 등 식재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장소의 녹화에 제격이며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트렐리스 안에 있는 식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용호로에 설치되는 그린 트렐리스는 가로변 녹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연3동 49호 광장 도로변 방음벽면에 녹화사업을 통해 녹색공간으로 변모했다.



오는 7월까지 용호로에 그린 트렐리스(조감도)가 설치돼 도시미관을 살리게 된다.

대합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020331-89-12545호

5F 이벤트실/뷔페식당 (환자용 자연식단)

3F 암(癌) 재활병동

2F 노인재활병동

1F 원무과/노인재활병동

B1 주차장

황령터널 500m 앞

보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병원

전화상담 051.612.0075

www.grandnature.kr/608-020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1번지

황·령·산·소·나·무·가·보·이·는·창·가·에·햇·살·이·비·칩·니·다·

생각의 깊이가 다른 당신!

당신은 그랜드 자연총병원 가족입니다

희망과 대안이 있는 자연속 명품병원

24H 서비스 의료·간호·입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

생식과 버림이 걸려준 좋은 재료에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의학·한의학

보완 통합 의학적 재단 의학·한의학 협진 병원입니다.

호텔형 병원

더 쾌적하고 더 편안한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주간/월간 행사

월 16:00

찾아오는 시민 건강강좌

수 15:00

미음수련 다도 요법

목 15:00

행복 송로문 웃음치료

매월 환우와 함께하는 그랜드자연 정기 음악회

그랜드 자연총 병원

GRAND NATURE HOSPITAL

병원장 나용승 의학박사

현 부산의과대외과교수, 부산의과대학후, 동인고후